

가을의 깊은 정취를 더해주는 숙성 증류주 '혼'

모든 제품은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시기가 있다. 여름엔 맥주, 겨울엔 위스키 등 주류도 계절을 탄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는 잘 자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숙성 증류주 '혼'이 잘 어울린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세계 평균보다 높고 주류 시장의 규모도 큰 편이지만, '우리 술' 하면 바로 연상되는 제품이 없는 실정이다. (주)골든블루는 우리나라 대표 명주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역특산주 업체와 협업해 '혼'을 선보였다. 혼은 6월 출시 이후 4개월 연속 판매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혼은 브랜드 이름, 제조 방식, 패키지 등 모든 부분에 차별화를 두고 만든 프리미엄 숙성 증류주다. 브랜드 이름은 소비자들에게 쉽게 기억되고 브랜드가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혼'이라는 이름은 독특함과 강렬함을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며 주목을 받고 있다. '혼'의 숨은 뜻은 세계에서조차 지지 않을 우리 술을 육성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제조 방법 또한 40년 경력의 증류주 장인의 정성과 손길을 거쳐 검증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경북 문경의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했으며, 원재료의 맛과 향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 고급 위스키와 같은 방식으로 증류했다. 이후 300일간 항아리에서 숙성되는 동안 우리

농산물의 풍성한 풍미가 원액에 스며들어 맛은 깊고 향은 은은하며, 뒷맛은 깔끔하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혼의 음용 방식도 취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 스트레이트로 마시면 한국 농산물의 진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얼음을 넣어 마시면 더 부드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올 가을 야외 나들이나 캠핑은 물론 기념일, 여행 등 다양한 자리를 빛내고 분위기를 띄우기에도 적합하다.

박희준 부사장은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의 바틀 라인이 시선을 끌며, 음용 시 알코올의 독한 향을 거의 느낄 수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혼과 함께 올가을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우리 술의 제대로 된 맛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

